

2. 출제개요

가. 출제의도

- 이번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논리적인 글쓰기 역량을 측정하고자 했다. 고등학교 사회과, 도덕과,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개념들을 활용하여 구성했다. 그러므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어』, 『화법과 작문』,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한국지리』, 『정치와 법』, 『사회·문화』 등에서 다루는 주제인 ‘그린 뉴딜’,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경제’, ‘탈원전 정책’, ‘파리기후변화협약’, ‘현실주의’, ‘이상주의’, ‘국제 관계’, ‘자국 우선주의’, ‘공공의 선’ 등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다.
- 교과서의 지문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글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읽고, 이를 주어진 시간 내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지, 개념을 사례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문 내용의 비교, 분석, 적용, 평가 등을 별개로 작성하는 문항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완결된 답안을 작성하도록 문제를 출제했다.

나. 제시문 요약

- 제시문 <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기초로 세계 여러 나라 및 한국 정부가 최근 추진해 온 그린 뉴딜 정책을 다룬 기사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EU의 그린 뉴딜 정책을 사례로 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정부가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관련 교과서

- 손영찬 외(2018), 『사회·문화』 (pp.198~199), 미래엔
- 변순용 외(2019), 『생활과 윤리』 (pp.144~147), 천재교육
- 정택준 외(2019), 『생활과 윤리』 (pp.139~141), 지학사
- 박철웅 외(2018), 『한국지리』 (pp.79~81), 미래엔
- 김국현 외(2019), 『생활과 윤리』 (pp.144~147), 비상교육
- 정창우 외(2018), 『통합사회』 (pp.52~61, pp.270~273), 미래엔
- 박영민 외(2019), 『화법과 작문』 (pp.162~173), 비상교육
- 신유식 외(2018), 『국어』 (pp.116~133), 미래엔

- 제시문 <나>는 세계의 전력 수요와 발전연료별 전력 생산량을 다룬 국제기구 등의 정책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월간지의 일부와 발전연료별 전력량이 차지하는 비중의 이력과 전망을 보여주는 그림을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 제시문의 전반부는 최근까지의 화석연료, 원자력, 태양광과 풍력 등 에너지원에 따른 발전량의 추이를 설명한다. 또한 제시문의 후반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구의 온도 상승 억제를 전제로 작성한 2050년까지의 발전원별 전력생산량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교과서

- 정창우 외(2018), 『통합사회』 (pp.270~273), 미래엔
- 박철웅 외(2018), 『한국지리』 (pp.79~81), 미래엔

- 김국현 외(2019), 『생활과 윤리』 (pp.144~147), 비상교육
 - 박영민 외(2019), 『화법과 작문』 (pp.162~173), 비상교육
 - 신유식 외(2018), 『국어』 (pp.116~133), 미래엔
- 제시문 <다>의 ①과 ②는 각각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에 관한 『생활과 윤리』(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교과서의 내용을 발췌·수정한 것이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 또는 국제 분쟁 해결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다. 전자는 국제 정치가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권력의 투쟁이라고 보는 반면, 후자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과 도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실주의는 국가가 이기적인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역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반면, 이상주의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듯이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공조와 규범을 통해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관련 교과서

- 김국현 외(2019), 『생활과 윤리』 (pp.209~210), 비상교육
 - 정탁준 외(2019), 『생활과 윤리』 (pp.202~203), 지학사
 - 변순용 외(2019), 『생활과 윤리』 (p.208), 천재교육
- 제시문 <라>는 UN 주도의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최근 이로부터 탈퇴를 결정한 미국의 사례를 다룬 신문 기사에서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 협력 방안으로서의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파기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이러한 결정이 향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미칠 영향과 함께 실제로 미국의 협약 탈퇴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문제(온실가스 배출)를 다루고 있다.

관련교과서

- 손영찬 외(2018), 『사회·문화』 (pp.198~199), 미래엔
- 변순용 외(2019), 『생활과 윤리』 (pp.144~147), 천재교육
- 정탁준 외(2019), 『생활과 윤리』 (pp.139~141), 지학사
- 박철웅 외(2018), 『한국지리』 (pp.79~81), 미래엔
- 김국현 외(2019), 『생활과 윤리』 (pp.144~147), 비상교육
- 정창우 외(2018), 『통합사회』 (pp.52~61), 미래엔

다. 문항 해설

<문제 1>

- 문제 1의 논제는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통해 EU의 그린 뉴딜 정책과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여 서술하고, 세계전력발전량의 추이와 전망을 토대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의견을 분석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
- 제시문 <가>는 『사회·문화』(미래엔) 등 여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EU와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다룬 신문 기사를 발췌·수정했다.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EU의 그린 뉴딜 정책이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조 내지는 개입 필요성에 의해 제안되었다는 점과 환경 문제의 해결이 경제적인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관련성을 제시문 <가>에서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EU 그린 뉴딜 정책의 목표는 탄소 사용량의 규제를 강화하고 EU 회원국의

기업 보호를 위한 탄소국경세의 도입에 있다는 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EU의 정책은 EU내 기업들의 보호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비EU 교역국의 탄소 배출 최소화를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지문에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정책이 EU의 그린 뉴딜 정책과 차별화되는 주요 정책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제시문 <가>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 제시문 <나>는 『사회문화』(미래엔) 등 여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 전력 수요 및 발전연료별 전력 생산량과 관련하여, 전기 신문에서 인용한 세계에너지기구(IEA)에서 제시한 세계 전력 발전량에 관한 자료와 Bloomberg New Energy Outlook 보고서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추이와 2050년까지 지구의 기후 변화를 고려한 필요 전력량의 주요 공급원 전망을 다룬 기사를 발췌·재구성했다.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나>에서 앞으로 30년간 현재보다 전력발전량이 80% 증가해야 하는 상황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탄소 전력을 생산해내야 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점을 텍스트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탄소 발생량이 많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의 증가와 동시에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을 적어도 현재의 비중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그래프와 텍스트를 통해서 읽어 내야 한다.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국제적인 추세에서는 탄소 배출에 제약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판 뉴딜정책에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량의 증대와 더불어 탈원전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토대로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추세에 공조한다는 점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사고 방지 정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가 없는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정책이어서 찬성한다는 방향으로 기술할 수 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만으로 필요한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방향으로 기술할 수 있다.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만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방향으로 기술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에너지 정책을 제시한 정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필요 전력 수요, 국가 경쟁력 및 원전의 안정성과 같은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을 고려해서 주체적으로 비교, 검토 및 종합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선별하여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2〉

- 문제 2는 국제 정치와 환경 문제의 연관성과 관련한 통합적 사고와 적용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제시문 <다>에 나타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관점을 파악하고, 각각의 관점을 제시문 <라>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 관계 사례에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는 국제 관계에 대한 현실주의 관점과 이상주의 관점에 대한 내용을 발췌·재구성했다. 제시문 <라>는 미국이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한 것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다룬 신문 기사를 발췌·재구성했다.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먼저, 제시문 <다>를 통해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관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시문 <라>의 사례에 적용하여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의 탈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제시문 <라>의 사례를 국가 간 힘의 논리와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도덕적 원칙이 국가 간 정치 행위에 적용되기 힘들다는 점이 강조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대외 정책은 오직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제시문 <라>에 언급된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때

문에 필연적으로 국가 간 협력과 공조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주의 관정보다는 이상주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즉,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듯이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도덕과 국제 규범 등을 통해 국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국가 역시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국제 관계의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을 할 수 있다.

3. 평가기준

【문제 1】 배점 50점

영역	세부내용	배점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였는가? 	15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의 정책과 제시문 <나>의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 갖는 주요 특징을 파악하였는가? 제시문 <가>의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시문 <나>에 제시된 정보를 충실히 활용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25
논리적 표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 	10

1번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가>에 드러난 EU의 그린 뉴딜 정책의 특징을 기술한다.

둘째, EU의 그린 뉴딜 정책 및 제시문 <나>의 세계전력생산량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시문 <가>에 제시된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주요 특징을 파악한다.

셋째, 제시문 <가>에 제시된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EU의 그린 뉴딜 정책 및 제시문 <나>에 제시된 세계 전력생산량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기술한다.

〈문제 1〉

- ① 제시문 <가>에서 EU의 그린 뉴딜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고 명확하게 서술한다.
- ② EU의 그린 뉴딜 정책 및 제시문 <나>의 세계전력생산량과 비교·분석하여, 제시문 <가>에 제시된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주요 특징을 파악한다.
- ③ 제시문 <가>에 제시된 EU의 그린 뉴딜 정책과 제시문 <나>에 제시된 세계전력량 추이 및 공급원별 비중을 제시한 정보를 충실히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이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문제 2】 배점 50점

영역	세부내용	배점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다>에 나타난 두 가지 관점, 즉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관점을 파악하고 있는가? 제시문 <라>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에 역행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결정에 대한 내용임을 이해하고 있는가? 	15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다>의 이상주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사례를 비판하거나, 반대로 제시문 <다>의 현실주의 관점으로부터 제시문 <라>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가? 앞서 선택하지 않은 다른 하나의 관점을 토대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대처 방안에 관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 수 있는가? 	25
논리적 표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 	10

2번의 답안은 다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다>의 ①이 현실주의, ②가 이상주의 관점임을 파악하고, 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문 <라>의 사례의 원인을 분석한다.

둘째,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하나의 관점을 적용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문제 2〉

- ① 제시문 <다>의 ①이 현실주의, ②가 이상주의 관점임을 파악한다.
- ② 제시문 <다>에서 파악한 각각의 관점을 <라>의 사례에 적용하여, 이를 정당화(현실주의 관점)하거나 비판(이상주의 관점)한다.
- ③ 제시문 <다>의 관점 중 앞서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입장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대처 방안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이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4.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에 기술된 EU의 그린 뉴딜 정책은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 간의 공조 필요성과 더불어 친환경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의 모델로 삼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기후 변화를 위해서 EU의 회원국들은 유럽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움과 동시에 EU와의 교역 국가들도 탄소 사용량을 규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일부 국가만이 아니라 각국의 공조를 유도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전력 생산을 위해 고비용의 투자를 하고 있는 EU 내의 기업들이 국제 교역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여 해당 기업들을 보호하고 친환경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EU를 주요 교역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여서 탄소 국경세를 최소화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이 가지는 특징은 EU와 같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대안적인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이라고 여겨지는 액화천연가스(LNG)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EU의 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탈원전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문 <나>의 자료는 세계의 전력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필요한 전력량을 감당하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를 겸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탈원전 정책까지 고려하면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들의 전력 생산량이 EU 회원국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 전력 수요의 비중에서 현재 대비 액화천연가스(LNG)를 17%, 신재생 에너지를 15% 증가시키고 원전의 비중을 12%로 감소시키면, 결국 화석 연료인 액화천연가스는 탄소배출이 적어 친환경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친환경이 아닌 탄소를 배출하는 전력은 현재 대비 약 20% 정도만 감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EU에 상당한 탄소 국경세를 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한국 기업들의 EU 내의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액화천연가스(LNG)를 화석연료로 봐서 탄소 배출 전력을 높여 기술할 수도 있으며, 액화천연가스는 화석연료이지만 탄소 배출이 타 화석연료보다 적어 친환경 에너지로 간주하여 기술할 수도 있음. 전자의 경우 예시 답안의 작성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서술할 수 있음. 제시문 <나>의 지문과 그래프에 제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EU와 비슷한 탄소 저감 노력을 통한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침으로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및 이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EU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비록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재생에너지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필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탈원전 정책까지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포함하여 원자력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원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 등의 논리를 통하는 지지하는 근거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어야 함.)

〈문제 2〉

제시문 <라>에 나타난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의 원인은 제시문 <다>의 현실주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집합체로 간주된다. 때문에 국제 관계는 국가 간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며 도덕적 원칙은 국제 정치 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의 의무는 자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라>의 미국 역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자국민들에게 불공평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 탈퇴를 결정한 것이다.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정책은 미국의 전통적 제조업을 위축시키고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에 집중하는 이러한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다. 미국의 이러한 대외 행보는 자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는 하나,

국제 공조를 무너뜨리고 공공의 선을 훼손하여 지구 구성원 모두의 손실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 제정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문제는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몇몇 국가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시문 <다>의 이상주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듯이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때문에 인간 사이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하듯이 개별 국가 역시 상호 협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체결 역시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 제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주의 관점에 의하면, 국가 간 분쟁은 주로 무지나 오해, 잘못된 제도에 의해서 발생한다.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역시 해당 협약이 잘못된 제도라는 미국의 인식 내지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은 그것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손실을 야기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 간 협력이 보편적 가치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주의 관점에서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도덕과 규범이 널리 통용될 수 있다. 국제 규범이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을 때 그 규범은 결속력과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미국의 사례와 같은 개별 국가의 국제 공조에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명분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평화, 공존과 같은 보편적 도덕 가치 위에서 국가 간 협력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